



하나님께 신뢰 받는 교회

<디모데후서 4:2>



이 명 충 목사 (요코하마교회)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며 선교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 노력에 합당하지 않은 적은 수확에 탄식하고 지쳐 있는 목사님과 신도, 그리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교회가 되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선교라고 착각하고 맙니다.

2018년 선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신뢰 받는 교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기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처럼 교회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여 보내시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신뢰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뢰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다른 번역에서는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바꾼다면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흥미가 있다는 사람을 만난다면 복음을 전하기 쉽다고 기뻐하지만 직장이나 이웃과의 교제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못합니다. 기회가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많은 경우 우리들이 그 타이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록 싫어하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건 언제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신도 그리고 설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재해석하거나 진실을 흐리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신뢰 받는 교회

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교회

‘경책’이란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책’, ‘경계’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좀처럼 남의 죄를 경책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 받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말씀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화가 나서 교회에서 나갔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음에 말씀이 도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은 쓰러져 버립니다. 죄를 지성한 뒤 중요한 것은 ‘권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믿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 주십니다.

3.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는 교회

‘인내’란 참는다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관용’이라고 한 것처럼 크리스천의 인내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13:4,7). 사람들은 좀처럼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냉소적인 태도의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위주로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포기하거나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를 가지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이해력에 맞추어 충분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랑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주일을 맞아 선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때라도 말씀을 전파하고 죄를 경책하면서 복음으로 격려하며, 사랑의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신뢰 받는 교회로 변화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관동지방회 제직세미나

주제 :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시 : 2018년 2월 11일 오후 4시-6시

장소 :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회비 : 각교회 제직원수×500엔

강사 : 이흥식 목사 (대구평산교회) ※일본어 동시통역 있습니다.



관서지방회

2018년신년사경회 개최
교역자·사모 세미나도 가져

2018년 '관서지방회 신년사경회'가 전도부 주최로 지난 1월14일(토)부터 15일(월)까지, 오사카 지역은 오사카교회에서, 교토지역은 교토남부교회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의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강사로는 한국 부천시의 원미동교회를 시무하는 김승민목사를 초청하였다. 첫 집회는 13일(토) 오후7시,

오사카교회에서, 두 번째 집회도 오사카교회에서 14일(주일) 오후3시, 관서지방회 각 교회가 연합으로 150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 세 번째 집회는 교토남부교회를 장소로, 15일(월) 오후 7시 허백기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관서지방회 교역자회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또한 15일(월) 오후 3시에는 김승민목사를 강사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엡4:11-12)'이라는 주제로 교역자 및 사모 세미나가 관서지방회 교역자회 주최로 교토남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신년사경회'는 관서지방회 각 교회가 2018년 새해



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신년사경회를 위해서 오사카교회와 교토남부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모로 봉사하였었고, 찬양, 반주, 통역, 안내 등으로 섬겨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서지방회 각 교회가 연합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보고 : 송남현목사)

서남지방회

2018년도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福岡에서 개최

2018년 1월 7일, 후쿠오카교회에서 전도부 주최로 서남지방회의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정초사경회는 오리오교회를 담임하는 천봉조목사가 강사가 되어, <성화예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6장 1-23절의 말씀을 강해하였다. 금번 정초사경회를 통해 솔직하고 진실한 천목사의



말씀은 서남지방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주었으며, 새 해를 맞아 우리들 자신이 죽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영적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제 2부 순서로 서남지방회장인 이해란목사의 인도로 지방회도제직회가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비록 적은 숫자인 42명이 참석하였으나, 먼 오끼나와교회의 광용길목사박재덕 장로까지 참석해 주셔서 뜻깊은 도제직회가 되었다.도제직회 시간에는 각 교회별로 나와 새 해 교회의 사역과 기도제목을 나누었으며, 서남지방회의 각 교회를 위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 신치선 목사)

여성을 위한 전화상담

DV나 자녀들의 문제 등으로 혼자서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06-6731-1616

<전화접수> 제1·3·5주 토요일 정오12시~오후4시

일본어 제1·3·5 토요일 한국어 제1·3 토요일



오사카 제일 민박 OSAKA STAY

대표 정홍권 장로/안희자 권사(오사카교회)

大阪市生野区中川西3-9-6(大阪教会近く)

Tel 06-6777-7033 / 携帯090-8538-4433

Kakao ID : nttip0033

Email: osakastay@dune.ocn.ne.jp

http://www.osaka-stay.net

大阪市指令許可書 11549号

国際人種差別撤廃デー
市民集会

マイノリティ宣教センターでは、3月21日の国際人種差別撤廃デーに、日本のNGOの方々とともに、世界各地で展開されている人種差別反対のたたかいと連帯し、日本における人種差別撤廃基本法の早期実現を、日本社会に訴えるための集会を開催します。

●と き : 2018年3月21日(水・休日)
13:00~16:00

●場 所 : 在日本韓国YMCA 9階ホール

●参加費 : 1,000円(学生500円)

●基調報告 師岡康子さん(弁護士)

●移住女性、被差別部落、アイヌ、在日コリアンなどのマイノリティの現場から、海外からの声

国際人種差別撤廃デー
合同祈禱会+感謝会

3月21日の国連人種差別撤廃デーにあわせ、「世界のマイノリティを憶えて祈る」との声明を受けて祈禱会を開催します。併せて、マイノリティ宣教センターの創設から1年に際して、サポートをくださった諸教会、諸団体の方々に感謝を込めて、夕食をともにしながら、活動の報告をするとともに、明日にむけての課題を確認し、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

●と き : 2018年3月21日(水・休日)

※祈禱会 : 17:00~18:00 ※感謝会 : 18:15~20:00

●場 所 : 在日本韓国YMCA 9階ホール

●祈禱会 : 申し込み不要です。

●感謝会 : 申し込みが必要です。

参加費 : 3,000円(学生1,500円)

※メールで下記までお申し込みください。E-mail: info@cmim.jp

서부지방회

일본기교단 효고교구와
한일교류 신도대회 개최

2018년 1월 8일(성인의 날)에 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 甲東教会에서 <주는 하나, 믿음은 하나> 라는 주제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34회 일한 신도대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는 공연자인 関谷直人(せきやなおと)목사가 <광야에 열린 길> (이사야 43:15-19) 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甲東教会의 牧師인 西沢他喜衛(にしざわたきえ)목사가 성찬식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1명의 청년(재일대한기독교 카와니시교회)이 성인 축복식을 가졌다.

개회예배 후에는 참가자가 10분단으로 나누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테마「우리교회, 찬양·교회의 음악, 가정·신앙의 계승」을 선택하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関谷直人목사가 「새 노래로 주를 향해 노래하라」라는 테마로 찬양과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関谷

사의 유머있는 멘트와 놀라운 기타 실력 그리고 힘있는 그의 찬양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하였다.

関谷直人목사는 한국성도와 일본성도들이 함께 알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국적은 틀리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임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번 兵庫教区の 참가자는 25교회 89 명, 西部地方会 참가자는 6교회 46명, 합계 135명이 참가했다. 앞으로도 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와 협력하여 이 대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 : 윤성철장로)

서남지방회

크리스마스 음악예배 개최
재미있는 분위기로 모두 즐거운 시간

서남지방회에서는 연합 크리스마스예배를 여성회, 청년회가 주최하여 지난 12월 10일(주일) 博多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지방회 각 교회에서 76명이 모여, 1부 예배에는 김인과목사가 설교하고, 40명으로 구성된 연합성가대가 찬양하고 윤선박목사가 축도하였다.

2부 순서는 각 교회의 참가자 소개와 장기를 자랑하면서 재미있는 분위기로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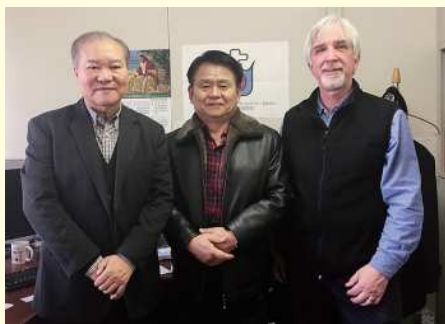
하카타교회의 따뜻한 대접에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과 교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가득 안고 돌아왔다.

(보고: 서기 이호자)



캐나다 선교사의 흔적을 찾아서

— 토론토에서 황환영장로가 방문 —



캐나다 토론토에는, 과거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자료를 전시한 전시관이 있다. 2011년에 개관한 “대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 (Museum of Canadian Missionaries in Korea)”에는 최초로 1888년에 조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였던 게일(Gaie) 부터 시작하여 130여 년간 한반도 북부와 간도 지역의 복음화와 근대화 및 민족해방에 기여했던 180여 명의 대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적 유산을 미래에 계승하기 위하여 그들의 선교활동에 관한 자료를 발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서 책임자로 섬기고 있는 황환영(黃煥瑛)장로가, 작년 4월 부터 캐나다장로교회로 부터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 선교사로 파견받아 마이너리티선교 센터를 섬기고 있는 데이빗 맥킨토시선교사를 만남으로, 일본에도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 와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자료들도 전시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과 흔적을 찾기위해 일본을 방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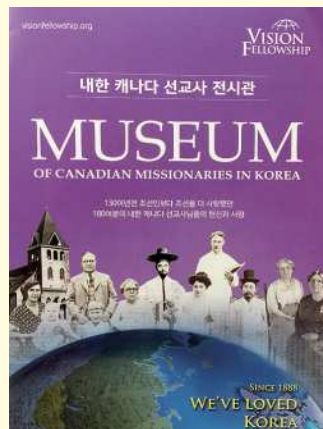
왔습니다.

지난 1월 16일 데이빗 맥킨토시 선교사의 안내로 총회 사무실을 방문한 후, 오사카 및 나고야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이러한 캐나다 선교사들 자료 수집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여 어려운 시절에 일본에 와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 활동하였던 L.L. 영선교사를 비롯하여 존 맥킨토시선교사, 그랜 데이빗선교사 안더슨 선교사 등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캐나다선교사들의 사진 및 서적, 물품 등이 있으면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2019년 전국 교역자 연수회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지면서 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우리 총회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면서 도와주었던 캐나다장로교회(PCC) 및 캐나다연합교회(UCC)를 방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총간사 김병호)



특별기고

『열매의 때를 기뻐하며』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선교협약 20 주년 기념집회에 참석하고—



日本 그리스도教会 섭외위원장 八田牧人 목사 (札幌発寒教会)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 일본기독교회(CCJ)와의 선교협약체결 20주년 기념집회가 지난 2017년 11월23일(목)에 大阪 姫松(오사카히메마쓰)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에서는 양 교단의 현상과 과제를 놓고 교역자가 서로의 이해를 나누기 보다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선교협력실무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실제로 청년을 지원하여 준비를 거듭하였는데 포스터, 프로그램, 당일 실무까지 그들의 손에 의해 작성되고 진행되었다. 당일 참가자는 64명이었다.

청년들과 함께 실무와 준비를 맡았던 KCCJ 김진야목사(横須賀교회·신도위원장), CCJ 大石周平목사(府中河原伝道所·실무위원), 그리고 장소를 위해 협력해 주신 大阪姫松교회 藤田英夫목사(近畿中会議長)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개회예배는KCCJ부총회장 김건목사(川崎교회)의 사회, CCJ 대회의장 富永憲司목사(柏木教会)의 설교, KCCJ 関西지방회장 박성균 목사(和歌山第一教会)의 성찬식 사식, KCCJ 총회장 김중현목사(浪速교회)의 축도로 거행되었다.

주요 발제는, 양 교단에서 3명씩, 6명이 각각 10대, 20대, 30대의 연령대를 대표하는 형태로, 『WA』-「부족함」이 있는 사람에서 「둘도 없는」 사람으로-의 주제에 맞게, 각자의 체험을 통해 실감하며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발제순으로 10대 대표인 이지희(KCCJ), 후지모리 레이(CCJ), 20대 대표로는 장창수(KCCJ), 히라이와 토모리(CCJ), 30대 대표는 김상우(KCCJ), 오오이시 게이스케(CCJ)였다. 전원 모두가 젊은이다운 개성과 재능을 발휘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발표했다. 그리고 북해도와 동경, 긴키 지역에서 모여 방청하던 청년들도 진지하게 공감하며 듣고 있었다. 그 일체감은 단지 동료 들끼리만의 기세가 아니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함께 생각하도록 해 준 것이었다.

발제자가 공통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은, 그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자신답게 해 준 곳이 교회라는 점, 그곳에서 방황하여 나온 부족한 자신이 거할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또 자기 노력이나 식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교제를 통해 발견한 삶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들의 시도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표를 얻은 듯한 느낌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며 폭넓게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바람이 전해졌다. 각 연령대의 발제마다 실시된 그룹토의도, 양 교단의 청년이 균등하게 맡아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점은, 양 교단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입각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양 교단의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지고, 들려졌으며, 삶에 공유되어 살아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선교와 전도가 문제가 될 때, 우리들은 전달할 내용과 어떻게 전달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들렸을가에 대한 질문도, 설득의 성과나 유형의 설치와 동의에 의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과 우려속에서도, 성경 말씀은 확실히 전해지고, 들려지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발언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선교협약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 교단의 활동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주년 기념 집회는 양 교단이 말해 온 것에서 무엇이 들려졌는가를 차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어서 기뻐다.

양 교단에도, 청년층이 희박하고, 숫자적으로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열매는 자라고 있었다. 서로간에 신뢰하며 발언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듣고 있던 우리들도 흐뭇했다. 교회가 전해 온 복음을 분명히 듣고 있다는 기쁨이야말로, 선교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희망일 것이다. 그 희망을 믿고, 개회설교에서 말씀하신 “두려워말라,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양 교단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생각했던 집회였다.

(翻訳: 郭恩珠牧師)

*이 기사는 일본그리스도교회 기관지 복음시보 2018년1월호에 실렸던 내용을 번역하였습니다.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 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